

✓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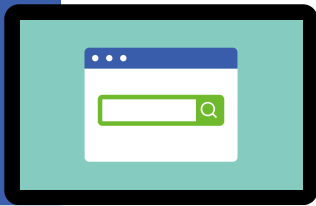
✓ 방법 이메일 설문조사(주관식)

✓ 기간 2023. 2. 28 ~ 3. 14 (2주)

✓ 대상 협회 회원사

✓ 회신 25개 기업 30명 응답

검색 제휴 이후 반론보도닷컴이 더 중점되어야 할 콘텐츠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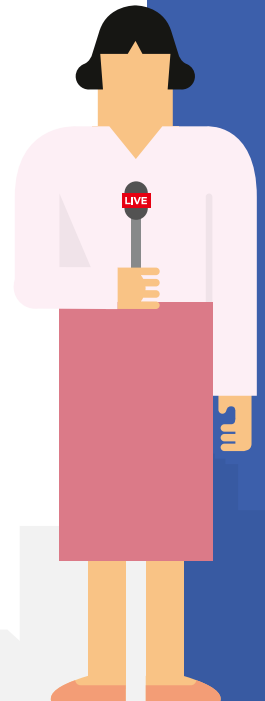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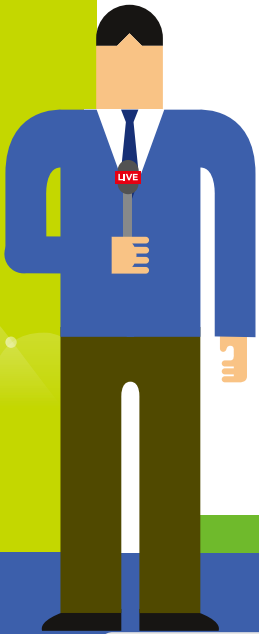
유사언론 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보도

- ✓ 광고/협찬 전제로 한 유사언론행위 사례 보도
- ✓ 인터넷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의 문제점 제기

팩트 체크 및 기업 입장 반영

- ✓ 기업 보도 팩트 체크 및 반론 통해 잘못된 기사 확산 차단
 - 팩트 체크 코너 신설 / 불명확한 기사 내용·출처 실제 확인
- ✓ 기업 의견을 듣고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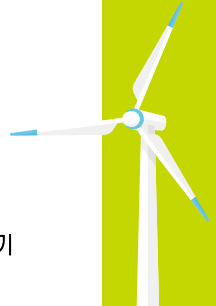
광고 / 홍보 관련 기획 보도

- ✓ 언론 관련 이슈 및 광고·홍보 트렌드 전달
 - 언론 부정이슈 보도/오보에 대한 기업 대응 사례 연구
- ✓ 마케팅 이슈 분석, IR/GR케이스스터디, 광고효과 조사 및 검증



콘텐츠 다양화

- ✓ 기업 ESG 이슈 및 트렌드 분석
- ✓ 커뮤니티상 화제인 뉴스 & 이슈 따라잡기



매체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 🔍

언론사로서 내실 강화

- ✓ 기자 등 전문 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충
 - 정규 필진 + 전문 객원 필진 확보
- ✓ 조회수·구독자수 확보를 위해 콘텐츠 개발 집중
 - 독자 관심사 분석해 일반인 접근성 및 심층 보도 강화
- ✓ 매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및 고객 접점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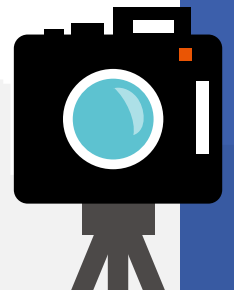
기업의 적극적인 보도피해 제보 & 반론보도닷컴 모니터링 활성화

- ✓ 해외언론 / 언론인의 취재 윤리 등 해외 사례를 기획기사로 연재



기업(회원사)과의 공조

- ✓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 기업 우호적 콘텐츠 제작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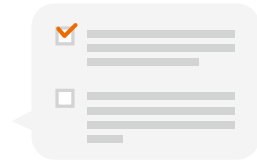
반론보도닷컴 발전 방안과 향후 기대하는 역할

대중에 대한 기업의 청구 역할

- ✓ 기업 목소리를 가장 가깝고 정확하게 듣는 사랑방 역할 기대
 - 주요 이슈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공정한 시각에서 보도
 - 3자적 전달자로서 객관적 / 공정한 입장 견지

국내 언론 환경 개선

- ✓ 유사언론 문제를 수시 / 정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활동 필요
- ✓ 오보 바로잡기에 힘써 독자들에게 팩트 전달
- ✓ 매체명처럼 반론보도 강화. 시사전문성 키워 전문지로 성장 필요



기타 의견

- ✓ 홍보·반론 창구 넘어 교양 / 트렌드 / 지식 정보도 함께 주는 매체로 발전
- ✓ 진정성을 담은 착한 활동 (사이비언론 대응 / 중소기업 홍보 지원 등)
- ✓ 기업 / 소비자 / 시장 감시자 등 어떤 시장 참여자라도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소통 공간 마련

NAVER '반론닷컴'
YouTube '반론닷컴TV'를 검색하세요

www.banronbodo.com



반론보도닷컴

포털 뉴스 검색제휴 매체 선정

반론보도닷컴



반론보도닷컴이 올해 2월 10일,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검색제휴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광고주협회가 운영 중인 반론보도닷컴은
기사를 빌미로 광고·협찬을 강요하는
사이비언론을 비판, 견제하는 국내 유일의 인터넷신문입니다.

이번 제휴를 계기로 보도 영역 및 사업 저변을 넓혀
기업들의 자유로운 광고·홍보 활동에 더욱 공헌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론보도닷컴은 사이버언론신고센터를 통해
‘유사언론행위를 일삼는 매체와 언론인’을 제보 받습니다.

아래 유사언론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 유사언론행위 유형 |

- ✓ 기업 왜곡·부정기사 게재 또는 비보도 조건으로 광고 요구
- ✓ 기획 기사·광고형(특집) 기사 등을 빌미로 광고·협찬 강요
- ✓ 세미나·시상식 협찬 요청 불응에 대한 보복성 보도
- ✓ 포털 입점을 빌미로 광고 증액 요구
- ✓ 매체의 영향력을 앞세워 협찬, 물품 등을 요구하는 언론인
- ✓ 광고·홍보담당자에게 인신모독·명예훼손·욕설 등을 일삼는 언론인 등



사이비언론신고센터
접속 QR코드

* 신고는 반론보도닷컴 www.banronbodo.com 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익명 보장은 11년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온 광고주협회가 책임지고 보증합니다.